

2015년 10월 일본의 송이버섯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임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엔, %)

구 분	'15 8월 당월		'15 1-8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765,446	3.3	6,353,228	4.5
임 산 물	101,144	6.0	834,981	△3.4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통계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 백만엔, %)

품목	'14.1~8	'15.1~8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송이버섯 (생송이)	1,316	1,313	-0.3	중국	1,172	캐나다	118	부탄	10	-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통계

□ 생산 및 가격 동향

○ 작황

- 일본산 송이버섯은 인공재배를 하지 못하고 자연재배를 하고 있음. 그러므로 기후 등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생산량에 차이가 있음.
- 일본의 송이버섯 생산량은 매년 변동되고 있으며, 수요에 따른 증감보다 기후에 따른 생산자의 증감이 요인으로 볼 수 있음. 2010년에는 2009년에 비교해 약 5.8배의 생산량을 기록했음.
- 송이버섯의 생산량은 나가노현 29톤, 이와테현 4톤, 오카야마현 1.8톤임. 주 생산지인 나가노현과 이와테현을 제외한 3, 4위 생산지는 매년 바뀌고 있음.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가노현은 생산량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생 송이버섯 생산동향>

연도	생산량 (톤)	생산자수 (개소)
2009	24	2,518
2010	140	3,210
2011	36	2,553
2012	16	2,112
2013	38	2,721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

○ 도매가격

- 일본산 송이버섯은 안정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여 수입산 송이버섯이 일본산 송이버섯의 생산량을 웃돌고 있음. 일본산 송이버섯의 생산량이 많았던 2010년에는 도매가격이 가장 낮으며, 2012년 이후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송이버섯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의 도매가격은 6,593엔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주요 도매시장 송이버섯의 도매 물량 및 가격>

(단위 : 톤, 엔/kg)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780	4,474	424	6,811	516	5,704	446	6,550	383	7,165

자료 : 도쿄, 오사카 도매시장 월보 통계

○ 소매가격

<대형유통업체 A슈퍼마켓 송이버섯 판매상품>

			
중국산 1팩 680엔(세금포함 734엔)	중국산 1팩 980엔(세금포함 1,059엔)	일본 나가노산1팩 5,000엔(세금포함 5,400엔)	캐나다산 1팩 1,980엔(세금포함 2,138엔)

□ 소비 동향

○ 자국 생산

- 유통매장에서는 대부분 생 송이버섯이 판매되어 있음. 생 송이버섯은 주로 구이, 튀김, 밥, 도빈무시(송이버섯과 야채를 다시마 등의 육수와 같이 데쳐 먹는 요리)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일본산 송이버섯은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않는 자연재배로 판매가격이 고가 격임. 가을의 대표 야채라고 불리는 일본산 송이버섯의 제철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각 유통업체, 음식점에서도 기간한정으로 판촉행사, 특별메뉴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산 송이버섯은 수입산 송이버섯에 비해 향이 강하며, 씹히는 맛이 좋은 것이 특징임.

○ 대외 수입

- 수입산 송이버섯은 2013년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송이버섯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음. 주 수입국은 중국이며, 유통매장 이외에도 업무용 까지 사용되고 있음. 수입산 송이버섯은 유통되기 전까지 수송에 시간이 소요되어 일본산 송이버섯과 비교해 향이 떨어지는 면이 있음.
- 일본내에서 유통되어 있는 송이버섯이 수입산이 대부분이므로 표고버섯 등과 비교해 수입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시장 경쟁 상황

○ 현지시장 유통 경쟁 실태

- 한국산의 경우, 일본산 송이버섯과 가장 맛이 비슷한 품종임. 2014년은 수입 송이버섯의 수입금액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5위인 터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와 지중해 지역의 수입량 증가가 향후 시장 구조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의 송이버섯은 제철이 9월부터 10월이며, 다른 수입산의 송이버섯에 비해 낮은 유통시기임.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현안

- 일본산 송이버섯의 최대 생산지인 나가노현에서는 최근 소나무의 해충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음. 1970년대 이후 주요 원산지인 교토와 히로시마 등의 서일본 지역에서 해충피해가 확대하여 생산량은 대폭 감소했음. 다른 지역에 비해 표고가 높은 나가노현은 해충피해가 흔치 않았으나, 최근 해충피해가 확대하고 있음. 생산협회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산지의 정비 등으로 생산량 증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산 송이버섯은 자연재배로 인공재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못한 생산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재배에 힘쓰고 있음. 2015년부터 농림수산성의 프로젝트로 나가노현의 신슈대학과 공동으로 인공재배 기술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음.
- 2015년의 일본산 송이버섯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예년 평균의 약 60% 가격임. 도쿄의 대형 백화점에서는 일본산, 캐나다산, 한국산을 판매하고 있으나, 10월 초 현재는 일본산 송이버섯만을 판매하고 있음.



○ 수입 전망

- 일본산 송이버섯의 생산량 증가로 수입산 송이버섯이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량에 상응하는 생산량에 일본산 송이버섯만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수입산 송이버섯은 감소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한국산의 현지시장접근 방안)

- 현재 수입산의 송이버섯은 대부분이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송이버섯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한국산 송이버섯은 DNA 면에서 일본산 송이버섯에 가장 비슷한 품종이며, 이를 강조한 전략이 필요함. 일본산 송이버섯에 비해 가격이 낮으나 맛이 비슷한 한국산 송이버섯이 고가격인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리매김이 향후 한국산 송이버섯의 수출 확대의 방안으로 볼 수 있음.